

장수 계남면민의 날 수상자 선정

장수군 계남면은 지난 14일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제36회 계남면민의 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계남면민의 날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6회 계남면민의 날' 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으며,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문화체육장에 양종원 씨, 산업공익장에 이화림 씨를 각각 선정했다. 문화체육장 수상자로 선정된 양종원 씨는 전 계남면체육회장으로 활동하며 남다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지역 문화·체육 발전에 힘써왔다. 특히 면민의 날 체육대회, 장수군민체육대회 준비에 적극 앞장섰으며,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공익장 수상자인 이화림 씨는 계남여성이용소방대와 생활개선회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농촌 발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왔다. 아울러 토마토 선도농가로서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생활 환경 개선에 힘써왔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왔다. 한편 계남면민의 날 시상식은 오는 6월 15일 개최되는 '제36회 계남면민의 날' 기념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양종원



이화림

한국 백패킹·청정 관광 메카 재입증

전국단위 백패킹 대회 'OTT 파인드 2026 진안' 성료... 1000여명 참가

진안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단위 백패킹 대회인 OTT 파인드(On The Trail Find)가 3년 연속 열리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백패킹과 청정 관광의 메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웃도시 전문 브랜드 '베러워렌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안군 주천면 일원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진안에서 3회째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백패커와 행사 관계자 등 총 1,0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진안고원길과 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도보 중심의 건전한 야영 및 트래킹 문화를 즐겼다. 대회에 참가한 한 하이커는 "3년째 진안에서 열리는 OTT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진안고원길의 아름다움과 주천면의 깨끗한 자연에 감탄하게 된다"며 "올해는 더욱 쾌적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힐링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 관계자는 "국내 대표 백패킹 대회가 3년 연속 진안에서 개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정 진안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진안고원길과 주천생태공원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 관광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9개 부서, 농촌 일손돕기 팔 걷어

정읍시 공무원 90여 명이 지난 13일과 15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암면과 소성면, 덕천면 지역 농가를 방문해 영농철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인건비까지 올라 고통받는 농민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각 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본청 소속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해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15일 입암면사무소와 시청 지역협력과, 노인장애인과 직원 30여 명이 입암면 접지라에 있는 딸기 농가 육묘장을 찾았다. 이들은 모판 정리 작업 등을 거들며 구슬땀을 흘렸다. 앞서 13일에는 소성면사무소와 시청 총무과, 건설과 소속 30여 명이 소성면 대당리 일원의 토마토 재배 농가로 출동했다. 직원들은 5,048㎡ 규모의 비닐온실(시설하우스) 안에서 토마토 잎을 떼어내고 작업장을 정비했다. 같은 날 덕천면 행정복지센터와 동학유년과, 정보통신과 직원 30여 명도 덕천면 대죽마을에 위치한 태추다람 재배 농가에서 열매수기 작업을 도왔다. 가지마다 달린 열매 중 상품성이 좋은 하나만 남기는 이 작업은 단감의 당도와 크기, 색깔 등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는 필수 과정이다.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정읍 태추다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짧은 기간 많은 노동력이 요구돼 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지원을 받은 농가주들은 입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농가주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기에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줘 큰 시름을 덜었다"며 "현장에서 함께 땀 흘려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선관위, 전북현대 홈경기서 'FAIR한 선거만들기'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지난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FC와 협하여 진행한 'FAIR한 선거만들기' 홍보 캠페인을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속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투표 참여와 정책 선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에 앞서 투표참여 홍보대사인 김차동 씨가 공명선거의 염원을 담은 시축자로 나서 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광판을 통해서도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던 전북현대 소속 스타 선수들이 참여한 '투표참여 쉐어링' 영상이 송출됐다. 팬들은 평소 좋아하는 선수가 전하는 투표 독려 메시지에 환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LED 보드와 배너 등은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 일정과 정책선거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축구 경기를 즐기며 선거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어 유익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기장을 찾는 도민들의 관심이 투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석대, 장진영 기념관 환경정화 봉사활동 전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사회봉사실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입삼군 운암면에 위치한 장진영 기념관을 찾아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고(故) 장진영 배우와 장갑남 계남장학회 이사장의 나눔과 교육 철학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에는 교직원과 재학생 약 20명이 참여해 기념관 내외부를 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참여자들은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추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우석대학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인물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인 사회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석대학교와 고(故) 장갑남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장학금 기부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바 있으며, 이후에도 교육 나눔과 발전기금 기부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이어져 왔다. /오상근 기자

빛나는 청춘 응원... 남원시, 성년의 날 전통 성년례 개최

남원시는 지난 18일, 성년의 날을 맞아 남원향교에서 전통 성년례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된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의 긍지로 어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본분을 다하기 위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날이다. 이번 전통 성년례에는 남원향교 유립을 비롯해 성년례를 체험하고자 하는 남원제일 학생들과 각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학생 성년자가 전통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갖과 비녀를 착용한 채 엄숙히 이루어졌으며, 주요 행사로는 삼가례, 초례, 수훈례, 성년산신 등이 진행되었다. 행사 관계자는 "오늘의 주인공인 학생 여러분의 빛나는 청춘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



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축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진안군은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스무살 되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축하카드를 발송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젊은이들에게 성인으로서는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됐음을 축하할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로 진안군은 지난 2021년부터 20세가 된 청소년에게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다. 올해 성년을 맞이한 대상자는 2007년생으로, 관내 총 178

명에게 카드가 전달됐다. 카드에는 성년을 축하하는 인사와 함께 "도전과 실험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기길 바라며,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군 관계자는 "성년의 날은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날"이라며 "진안군 지역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부안축협 등, 예쁜 농장, 벽화그리기' 진행

고창부안축협(조합장 오교윤)은 축산환경 개선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소득의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고창부안축협과, 농협경제지주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 전북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 임직원이 축산농가 환경 개선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예쁜농장 벽화그리기 사업은 농협경제지주와 나눔축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장 외부 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축산 이미지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장 외벽에는 다양한 벽화와 환경개선 디자인을 적용해 농가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정비와 방역의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장 주변 정리와 환경정비, 소독활동 등을 함께 실시하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병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보절면,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생신 축하

남원시 보절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대기)가 독거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맞춤형복지 서비스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노인성 질환 및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이동 안전을 위한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고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축하해 드렸다. 어르신은 "최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생기는 것처럼, 나이가 구십이 넘으니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 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고마운 마음이 크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김대기 보절면장은 "앞으로도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등, 장애인 문화산 철쭉길 산행

남원시는 지난 16일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 및 전북 지리산 산악구조대와 공동으로 관내 장애인 40명, 구조대 대원 25명, 자원봉사자 25명 등 총 90명의 문화산 철쭉길 산행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리산 산악구조대의 자원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가을 산행을 함께 하는 것으로, 작년엔 뱀사골 천년송 산행에 이어 금년에는 아령면 문화산 철쭉길에서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1:1 매칭 철쭉길 산행에 이어 장애인들의 소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평소 자택이나 시설 밖으로 나와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뜻깊은 경험이 되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귀농인 등 대상 모내기 실용교육 추진

김제시는 지난 15일 김제시 체재형 가족실용농장에서 귀농·귀촌인과 실용농장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모내기 실용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도작의 기초가 되는 모내기 작업을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귀농·귀촌인의 영농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모내기 교육을 시작으로 생육관리, 병해충 관리, 수확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수도작 실용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생들은 모판 관리, 이앙기 사용 방법, 모내기 요령 등 실제 영농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에 참여하며 수도작 재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직접 모내기 작업을 체험하며 수도작 재배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실제 농촌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상종 소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농 체험과 실용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태 기자

건지산 일대 산불예방·환경보호 캠페인

지난 15일 전주시 건지산 일대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 및 등산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공헌에 나섰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추진한 이번 활동은 매월 시행하는 정기 봉사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야외 활동 시기를 맞아 시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자 40여 명은 건지산 등산로를 돌며 방치된 생활 쓰레기 약 300리터를 수거하는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산불 예방, 나무부터 실천합시다'라는 구호를 통해 일상 속 산림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